

홈 > 뉴스 > 기획 > 문화유산재발견

돌하르방은 옛 제주 삼읍성 지키던 수호신

[5 제주도 민속자료 2호 돌하르방]...도내 45기 문화재로 지정

데스크승인 2014.02.06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우석목(우성목), 무석목(무성목), 벽수머리, 두룽머리, 돌영감, 수문장, 장군석, 용중석....

돌하르방의 또 다른 이름들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인 돌하르방은 현무암으로 제작돼 조선시대 제주성과 정의성, 대정성의 성문 입구에 세워졌던 석상(石像)이다. 마치 본토의 장승과 유사한, 성을 지키는 수문장이자 금표(출입금지 풋말)로써 기능을 수행했다.

돌하르방은 1971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2호 지정됐는데, 돌하르방은 당시 어린이들이 부르던 명칭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제주성 동·서·남문 앞에 8기씩 모두 24기와 정의성과 대정성의 동·서·남문 앞에 4기씩 모두 24기 등 총 48기가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주성에 있던 1기가 분실돼 현재 47기만 남아있다. 또 제주성 동문 밖에 세워졌던 2기는 1960년대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 제주에는 총 45기의 돌하르방이 서 있다.

관덕정 정면 남쪽에 있는 민속자료 제2-1호부터 대정읍 인성리 동문지 옹성 내의 민속자료 제2-45호까지 돌하르방마다 '제2-○호'란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 돌하르방들의 위치는 복원·정비를 거쳐 제자리를 되찾은 정의성의 것들을 빼곤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다.

돌하르방은 삼읍성 별로 외형이 다른데 신장은 제주성의 것들이 1.57~2.38m로 가장 크다. 정의성과 대정성의 돌하르방의 키는 각각 1.2~1.77m와 1.08~1.46m다.

얼굴의 경우 제주성 돌하르방들은 둥근 눈과 뭉툭한 코 등 볼륨감이 좋고 눈썹까지 조각돼 있다. 입은 앙다물거나 끝을 살짝 올려 수문장으로서 위엄이 짙게 묻어난다.

정의성의 돌하르방 얼굴은 삼각형으로 튀어나온 코를 빼고는 납작하고 눈초리가 살짝 올라간 채 입은 일자로 다물고 있다.

대정성 돌하르방의 눈은 이중 음각선의 타원형으로 새겨져 있고 코는 바깥 면을 얇게 파낸 탓에 도드라진 모습이다. 입은 꼬리를 살짝 올려 웃는 표정을 짓고 있다.

제주성 돌하르방의 모자는 끝이 뾰족하고 넓은 테가 달린 병거지형인 반면 정의성의 돌하르방은 대체로 모자 끝이 편편하고 너비도 얼굴보다 좁다. 대정성 돌하르방의 모자는 테의 폭이 좁고 높이도 낮다.

제주성과 정의성 돌하르방들은 기석(받침돌)을 갖추고 있는 반면 대정성의 것들은 없다. 기석도 제주성의 것들에는 옆에 'ㄱ'이나 '□' 형태의 홈이 있지만, 정의성의 것들에는 없다.

돌하르방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18년 간행된 김석익의 편년체 역사서 '탐라기년'에 보이는데 '갑술 30년 청 건륭 19년(1754년·영조 30) 제주목사 김몽규가 성문 밖에 용중석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용중'은 중국 진시황 때 흉노족을 벌벌 떨게 했던 용맹한 장수인 완용중으로 사후에 그의 동상이 제작돼 성문 앞에서 나라를 지켰다는 고사의 주인공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